



대원미디어, '마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대원미디어, '마블' 관련 완구 사업 본격 전개 예정

<2020-05-19>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기업인 대원미디어(048910 대표 정욱, 정동훈)는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마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미디어는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는 '마블' 브랜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피규어를 비롯한 '마블' 관련 완구 사업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본 계약을 통해 대원미디어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의 국내 '마블' 완구(피규어 등) 개발 및 유통에 대해서 우선 운영 권한을 획득하게 됐다.

이는 대원미디어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완구 유통 사업에 뛰어든 이래 단기간에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대원미디어는 이미 지난해부터 '겨울왕국 2', '토이 스토리 4' 등 디즈니 관련 완구 유통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이번 계약을 통한 사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대 박스오피스 5위에 랭크('19.12 기준)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비롯해 마블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양한 영화 시리즈와 영화 속 주인공인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등이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마블' 관련 소비자 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대원미디어의 매출 증대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마블' 브랜드 상품에 대한 수요층이 유·아동 뿐만 아니라 키덜트 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향후 대원미디어의 완구 유통 사업 포트폴리오 구상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원미디어는 이를 계기로 완구 사업에 대한 외연적 불륨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 계약을 통해 대원미디어는 ▲'마블' 완구(피규어 등)뿐만 아니라 모든 롤플레이 상품과 게임(카드 및 보드게임 등) 상품 유통 ▲이를 활용한 출판 사업과의 연계 ▲'마블' 관련 대원미디어 오리지널 상품의 개발 및 생산, 전시 등 다양한 OSMU(원소스멀티유즈) 사업 검토 및 추진 예정에 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새로운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론칭 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다양한 마블 시리즈를 안방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마블'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원미디어는 올해 개봉 예정인 디즈니 신작 '물란'의 프린세스 완구 시리즈를 국내 유통할 예정으로 완구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 자료문의 : 대원미디어 최정백 팀장 02-6373-3031 / 이영진 사원 02-6373-3032